

# ELLE

2014 S/S ELLE  
TRENDS  
뉴시즌 트렌드 가이드

WWW.ELLE.CO.KR

COVER GIRL  
밸런타인데이의 퓨즈  
린지 엘링슨

G-DRAGON  
<엘르>에디터들과  
즉석 일문일답

GOOD  
HANDS  
손으로 빛나는 세상

우리 헤어  
어떻게 곱할까?

2014 헤어배틀  
SLEEK VS. CURLY

## fall in LOVE

밸런타인데이 그와 그녀가 진짜 원하는 것 동상이몽 위시 리스트

STARS

여왕의 귀환, 전지현  
다니엘 헤니, 박신혜, 지창욱,  
강하늘, 리한나, 조셉 고든 레빗

GUYS'  
BEAUTY  
원빈, 이정재,  
임시완, 박형식

웰컴 투  
세(妻)월드

FEBRUARY 2014 ₩11,000  
9 771228 079000  
ISSN 1228-0798

# 마드리드의 여자 CAROLINA IN MADRID

CH 캐롤리나 헤레라와 살아 있는 아이덴티티, 캐롤리나 헤레라 바에즈를 만나리 <엘르>가 직접 마드리드로 떠났다. 글로벌 브랜드의 퍼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아내로, 엄마로 그리고 여자로 살아가는 그녀의 라이프스타일을 쫓았다. *photographer* 산전예 *editor* 김나래

딸들의 멘토로 종종 입에 오르내리는 '엄마, 캐롤리나 헤레라 바에즈도 예외는 아니다. 이름, 직업, 가족 운영의 비전까지 '남다른' 엄마의 영향력을 고스란히 대를 물받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나 뉴욕 록 패션 월드에 확고한 입지를 구축한 디자이너 캐롤리나 헤레라, 셋째 딸인 캐롤리나 헤레라 바에즈(또는 CH 주니어)는 어머니와 킬레비레이션한 토털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CH 캐롤리나 헤레라의 퍼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브랜드의 뮤즈 역할을 착실히 수행 중이다. "엄마를 통해 많은 걸 배웠죠. 그렇다고 그녀가 제게 이래저래라 가르치진 않았지만요. 상당 부분을 자연스럽게 학습한 것 같아요. 돌아보니 마흔이 넘어 디자이너로 데뷔한 열정이나 4명의 아이를 슬기롭게 키운 엄마만의 노하우가 놀랍기만 해요." 심플한 속에서 우아함을 뽑아낼 줄 아는 현대적인 심미안도 모전어 전이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우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어머니(매년 쇼의 피날레는 언제나 근사한 화이트 셔츠 차림처럼 그녀 역시 스타일과 삶에 있어서 확고한 비전의 소유자. "가장 나다운 모습일 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CH는 그게 누구일지라도 자신만의 편안한 방식으로 아름다울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죠. 같은 화이트 셔츠라도 재킷, 치마 등 색다르게 믹스매치할 줄 아는 매력적인 여자, 모녀가 함께 입는 옷, 그게 우리의 모토예요." 인테리어 디자인에도 열정적인 그녀는 19세기에 지어진 유서 깊은 아파트를 손수 꾸몄다. "컨셉트를 정해 놓고 인테리어를 구상했다기보다 부우사 출신인 남편, 두 딸과 아들을 위해 편안함을 우선 순위로 고려했어요." 특정한 룩과 스타일과 인테리어를 강제하지 않는 것, 나이와 상관 없이 저마다 삶의 원칙으로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CH의 아이덴티티이자, 바에즈의 라이프 정신 그 자체다.







유모차 같은 라이프스타일  
아이템부터 세련된 분위기까지  
'제니 루 웨어'까지 색선택으로  
잘 정돈돼 있다.



피렌체 남동쪽 안자 스토리



## FOLLOWING HER REAL DAY

### CAFE MURILLO #1. 카페 무릴로

'퍼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란 직책 이외에도 일 년에 두 번 아동복 컬렉션 팀을 이끄는 바예즈, 베이스캠프인 스페인 오렌제기상복과 바르셀로나(향수)를 오가는 일이 잦다. 엄마, 언니 페트리샤 헤레라 렌상이 책임지고 있는 케롤리나 헤레라의 뉴욕 오피스도 종종 방문하는 코스모폴리탄에겐 '꿀박이 작업실은 어울리지 않는다. 출장 스케줄이 없을 땐 바예즈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아파트를 홈 오피스로 삼아 일한다. '프라도 미술관과 '국립 소피아 왕비 예술센터' 인근에 위치한 집과도 가까운 '카페 무릴로'는 집에서 일하다 브런치를 먹거나 영감을 얻기 위해 들르는 단골집. 19세기의 빛바랜 바닥재를 유물처럼 보존하고 있는 카페 겸 지중해 요리를 선보이는 비스트로다. 빈티지 요소로 가득찬 카페 오너는 절친한 친구로 햄버거 마니아인 바예즈를 위해 특별히 '케롤리나 헤레라 햄버거' 메뉴를 만들기도 했다.

상업적인 요소는 최대한 배제한 '보지한 분위기'.



케롤리나 헤레라 바예즈처럼  
나 홀로 에스프레소를 한 잔  
마시러 오는 손님도 많다.



PALACIO DE CRISTAL

#2. 크리스탈 궁전

바예즈의 집 창가에선 마드리의 '히파로 불라는' 부엔 레티로 파크가 내려다보인다. 호숫가를 중심으로 여마 아미한 규모의 초목과 수풀이 우거진 공원은 복잡한 머리를 식히려 바예즈가 자주 찾는 장소. 공원 내에서도 건축가 리카르도 벨라스케스 보스코(Ricardo Velázquez Bosco)가 골조와 벽돌을 제외한 공간을 유리로 만든 '크리스탈 궁전은 아이들과 즐겨 산책하는 시크릿 플레이스. 커리어 우먼, 엄마, 아내 그리고 여자로서의 밸런스 맞추기에 고심 중인 그녀에게 가족은 인생의 1순위로 함께할 시간을 버는 것에 열중하고 있다. "자구 상 모든 엄마들은 가족과의 시간이 얼마나 축복인지 공감할 거예요. 남편과 아이들 돌보는 일을 나눠서 하고 있고, 늘 학교를 데려다주는 문제로 싸우지만요."

현재 전시 용도로 사용 중인 크리스탈 궁전 내부



비스틀러 서서 호수를 응시하는 바예즈



FEDERICA&CO  
#3. 페데리카 & 코

인테리어에도 조예가 깊은 바예즈, 스스로 모든 걸 해야 직성이 풀린다. "전형적인 '컨트롤 프리키'예요. 전문가에게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지만 집 꾸미기의 전 과정에 그녀의 손이 닿지 않은 부분이 없다. "특별한 틀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한데 잘 어우러지게 배치하죠. 이사할 때마다 몽땅 다 가지고 다니요. 지금 마드리드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싱글 시절 LA, 뉴욕에서 쓰던 것과 같아요. 내가 편안한 공간이 제일 중요한 컨셉트인 셈이죠." 때론 누가 버린 물건을 주워와 고쳐 쓰기도 하고, 전 세계 온라인 빈티지, 앤티크 숍을 뒤져서 어렵게 공수해 오기도 한다. 자라 홈(Zara Home), 헤비타트(Habitat) 등 저가 아이템들을 고가의 오브젝트와 적절히 '믹스매치'하는 것도 그녀가 자주 쓰는 방법. 마드리드 한복판, 숲 속 오두막처럼 숨어 있는 '페데리카 & 코'는 그녀가 사랑하는 손때 묻은 빈티지 점수와 데커레이션 아이템이 가득한 장소.





EVERYDAY  
INSPIRATION



LA CENTRAL  
#4. 라센트럴

여덟 살, 일곱 살 그리고 다섯 살 세 아이의 엄마인 바예즈는 일 외의 시간은 고스란히 아이들을 위해 투자한다. 결혼 전엔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아트 북(현대 회화의 거장 사이 톰블리(Cy Twombly), 개념 미술가인 알리기에로 보에티(Alighiero Boetti) 등의 팬을 자처한 그녀의 집엔 갤러리만큼 다양한 아트워크가 있다. 을 수집했다면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몰두 중인 요즘엔 서점에 가도 교육 혹은 육아 코너에서 한참을 서성인다.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매장 수를 늘려 가고 있는 라센트럴은 서적뿐 아니라 디자인 아이템을 함께 판매 중인 영감의 보고, 바예즈는 집 근처 '소피아 박물관', 칼라오(Callao) 광장 지점을 즐겨 찾는다.

재기 발랄한 디자이너의 소품도 함대하게 소개하고 있는 라센트럴.



백만엔 알파벳을 양각으로 새겼다.



HER EAT, PLAY,  
LOVE IN MADRID



카사발 (casavall)

노팅햄의 명물 '포토볼로 마켓'과 같은 격인 '엘 라스트로(El Rastro)'의 뜨는 파니처 전문 스펀. 디자인을 살짝 변경한 빈티지, 엔틱 제품 위주로 판매 한다. [www.madridinlove.com](http://www.madridinlove.com)



정원방정원방 (el jardín del ángel)

수십 년 된 카페가 즐비한 전형적인 마드리드의 구 시가지 산타마나 스퀘어 근처의 플라워 스펀. 정원 한가운데 올라브 나무가 시그니처다. [www.jardindelangeles](http://www.jardindelangeles)



산미구엘 마켓 (mercado de sanmiguel)

바로 서서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대규모 신선 마켓. 신선한 과일, 특상급의 이베리코 허몽은 로컬 피클이 추천하는 꼭 먹어야 할 품목. [www.mercadodesanmiguel.es](http://www.mercadodesanmiguel.es)



라 자카 데그리 (galeria la casa negra)

1998년에 문을 연 마드리드 유일의 민화 전문 갤러리. 후안 미로, 모로, 피카소의 원화를